

과 基壇面石등을 使用하여 構築하였다. 이들의 石材는 모두가 統一新羅代의 寺址에서 搬入된 塔材를 主로한 石材로 생각되나 附近의 住民들은 搬入經過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二、瑜伽寺 大雄殿 앞 三層石塔

玄風에서 約八km 떨어진 瑜伽面 內山洞에서 琵琶山쪽으로 올라가면 瑜伽寺가 있고 그 大雄殿앞에 높이 三m가량의 아담한 三層石塔이 있다. 塔은 下層基壇이 없고 上層基壇은 撐柱가 없는 마치 塔身같은 느낌을 주는 塔이나 上層基壇 甲石으로 부터 三層屋蓋까지는 安定感있는 基本形으로 된 高麗初로 생각되는 것이다. 基壇甲石과 各層塔身、屋蓋가 各各 一石으로 되어 屋蓋받침은 四段이고 屋蓋는 두툼하고 처마轉角에서 若干 反轉되었다. 相輪部는 後補로 周圍에 蓮瓣樣을 浮刻한 精緻한 寶珠形石材를 三層屋蓋위에 올렸다. 이 塔은 住持의 말에 依하면 元來 他處에 있었던 것을 移建한 것이라 하나 原位置에 對해서는 알 수 없었다.

이밖에 塔前에 方形 石燈 下臺石을 八角竿石 위에 있어서 올려 祭壇같이 만든 것이 있으며 境內에는 一邊 三五cm 高三〇cm假量의 塔身으로 생각되는 小石材가 放置되어 있다. 여기에는 四隅에 柱形을 彫出하고 四面에 如來座像으로 보이는 佛像을 彫刻하였으나 風化、磨滅이甚하다. 이의 年代는 三層塔보다 좀 앞서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木造樣式的 石塔材 新例

申 榮 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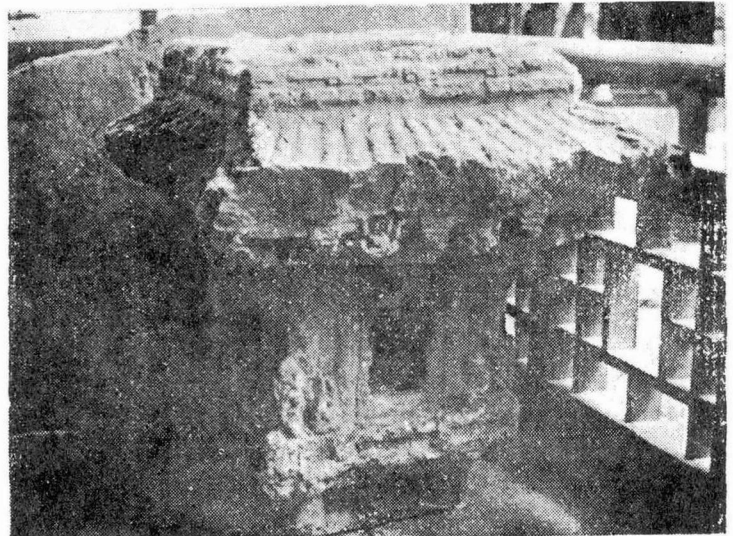
작년十一月내력을 알 수 없는 石塔材를 海雲臺觀光호텔 舊館前庭에서 黃濤永教授가 發見하여 慶州博物館에 收藏하였는데 그것이 忠實히 木造物樣式을 模造하였기에 紹介하여 둔다. 原來 海雲臺에는 部材하나가 더 있었다 하나 아이들 장난으로 없어지고 塔身、蓋石하나씩만이 지

금 保存되고 있다.

塔身(現高三七·六cm 一邊長三一·八cm) 正側面三間의 方形, 中央間은 넓고 左右間은 좁은 樣式, 下層蓋石欄干 위에 놓이도록 만들어졌다.

塔身은 大別하여 床下部와 床의 上部(正室)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下部는 太厚한 圓柱에 平昌枋을 짜들리고 柱上에 커다란 柱頭를 두었고 簡潔한 包를 組立하여 正室 枋마루 끝 난간 아래의 귀를 힘있게 받았다. 正室도 正側三間,

軸部는 下枋, 平昌枋과 中央間 문실주로 構成되었고 文실주는 開放된 全間隔을 充分히 表示하였다. 이중 平昌枋은 柱頭몸을 깊숙히 싸고 올라가 놓였는데 이는 普遍的인 手法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기둥은 圓柱, 柱身에 배흘림이 있고 柱上에 커다란 柱頭(高一·三五cm 幅四·二cm)가 놓여 素朴한 拱包를 結構하였다. 柱頭받침은 曲面으로 羅代의 他例(雙峰寺 澈監國師浮屠義城塔里石塔等)와 同類, 공포의 小累도 받침이 曲面으로 되었다. 공포는 柱心包系, 裝飾은 없다. 귀공포가 柱上의 공포와 따로 만 들어져 있는 점도 注目된다. 더욱이 中央 柱間에 공포를 配置한 것은 特記할만 하다이 部分에는 小累받침 端子柱나 華盤類를 놓던가 小累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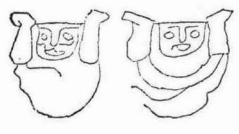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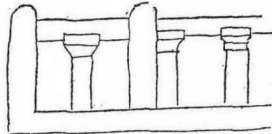


두는 例(雙峰寺澈鑑師浮屠浮石寺無量壽殿等)는 있어도 包를 組立한 것은 대단히 드문 異例이다. 四面 문밖으로 퇴마루를 깔고 난간을 들렀고 난간에는 一面에 二軀씩의 人物像(黃壽永教授談佛像)과 隅角에 華葉을 기둥 밑에 따라 浮彫하였다. 난간을 퇴마루 아래에 彫出한 것은 石材의 制約인듯 實相寺百丈庵石塔 등에서 그 類形을 볼 수 있다. 난간은 퇴마루 左右端와 中央間柱前에 굽직한 童子柱를 세워 힘받이를 삼고 그 사이에 소로받침 方形細柱를 세워 돌란대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난간의 모습은 同塔材 蓋石의 그것과 또 다른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공포의 道里처럼 依態된 正室의 上面은 板床形 그 中央이 透孔되고 孔周緣에는 突起된 柱이 있어 接續部를 表示하고 있다.

蓋石(現高二·三cm 現一邊長五四·六cm)은 屋蓋받침 昌枋以上の 架構와 椽木과 蓋瓦로 이루어진 落水面 蓋石의 난간등으로 構成되었다. 이로써 보면 蓋石은 別造된 上下塔身 사이에 놓여 위로는 난간위에 塔身의 床下部가 놓이고 아래에는 正室의 공포가와 닿아 柱上의 棋包가 비로

서 하나를 이루도록 考察되었던듯 하다.



蓋石의 棋包도 귀공포를 除外하고 三組中 中央의 것은 亦是 기둥과 通係없이 놓였다. 공포는 頭工으로 始作 頭工端에 커다란 사갈소로를 두어 行工과 諸工을 받았고 諸工에는 短木을 重疊한 部材(短長舌)를 놓아 外目道里를 받게 하였고 行工은 소로로 長舌를 받도록 되었다. 道里를 推定되는 部材는 角形 그 위로 서 아래가 걸렸다. 以外 中央間棋包左右에 두팔을 벌리고 일곱을 前面한 矮人이 있어 注目된다. 麗·鮮朝木造架構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더러 童子像을 配置한 例(心源寺普光傳燈寺大雄殿)는 있으나 隅角이나 門扉程度에 있을뿐이지 대담하게 前面으로 進出하지는 못하였다. 더러 이 部分에

全州豐南門처럼 唐獅子와 같은 獸形을 鐫出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華盤의 一種으로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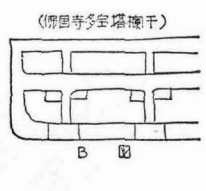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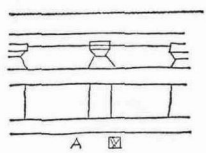
矮人の表情은 꼭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어 무거운 듯 고동스러운 듯 그려면서도 체념한 듯한 느낌을 同時에 感知케 하고 있다. 衣文이나 裝身具는 不明, 軒端은 모두 破損, 平交臺나 春舌端 莫斯瓦等은 알 수 없다. 蓋瓦(夫瓦)는 一般的인 半圓形, 落水面에는 별로 물매곡선이 잡혀져 있지 않다.

椽木과 瓦列은 그 짜임이 달라 先端의 方向이 다른 것이 普通인데 이 塔材는 그 方向을 한가지로 하고 있다. 春舌左右椽木은 소위 扇子椽手法으로 마치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있어 椽端은 春舌로부터 차츰 前面으로 向하여 오게 마련이고 瓦列은 春舌마루와는 관계없이 초장부터 前面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쩐지 瓦列을 春舌마루와 平行하고 있다. 이러한 例(石塔, 浮屠等)는 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詳細하게 比較檢討한 後考를 기다리고 싶다. 椽木은 方椽, 高보다 幅이 넓은 羅代의 他 例와 大同하다. 瓦列과 椽木은 各十五本이다.

蓋石落水面과 若干의 사이를 두고 난간이 둘러져 있다. 그 樣式은 羅代의 石塔(佛國寺多寶塔百丈庵石塔)이나 石燈 工藝物(感恩寺塔發見松林寺塔發見舍利器舍利器等)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에 童子柱를 세우고 角形의 돌란대를 짜고 그 위로 다시 짚고 가는 동발이 기둥을 덧세워 소로를 받치고 둥근 회란목을 들렸다. 이 塔材에서도 이 基本樣을 援用하여 B圖와 같이 表現하였는데 角木廻欄木下의 받침과 귀틀끝의 長方形 刻出은 A圖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手法이다. 그리고 碑岾寺發見己丑銘石像의 난간등에서 보이는 卍字무늬 장식이 省略된 점도 아울러 注目되어야겠다.

蓋石上面과 底面에 有孔突起가 있다 塔材의 石質은 淡紅色 水成岩, 軟質이다.

以上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몇가지 手法은 아직까지의 羅末麗初遺物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佛國寺多寶塔欄干)

이는 반드시 比較檢 討되어야 할 점이다 製作期는 대략 羅末麗初가 아닐까 推定한다.

新羅柱塔片

黃 壽 永

一

昨年十一月下旬의 일이다. 경주 半月城 古物商 昔氏로부터 塔을 四面에 陽刻한 石柱가 市內 民家에 있다고 하기에 入手를 부탁하여 두었다 그 후 數日이 지나 運搬된 現品을 보니 높이가 약 六十cm에 불과한 方柱의 頂上部分으로서 一面은 全破되었으나 他三面的 彫刻에는 큰 傷處가 없었다. 더우기 즐겁게 생각한 것은 三面的 塔形이 서로 高低의 差는 있으나 모두 相輪部를 보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古式을 전하는 貴重한 資料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 후 이 石柱片은 石窟庵 工事務所로 옮겨져서 자세히 조사되었으므로 이 곳에 소개하여 둔다. ①

二

그다지 치밀하지는 못한 花崗石으로서 方形底面의 現尺은 一邊이 二七·五cm인바 各面은 上部에 이듬에 따라 遞減되어



를 갖고 있다. 그리고 頂上部 또한 方形인바 그 中央에 圓形突起가 있어 그 徑이 九cm 高가 三cm이다. 이 같은 頂上의 圓形突起로 보아서 元來 그위에 어떠한 屋蓋形 別石이

있었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 바 이 같은 形式은 現在 慶州博物館에 移管되어 있는 栢栗寺境內原在의 六角石幢(異次頓供養碑 新羅 憲德王十年 西紀 八一八年)의 그것과도 同一하다. 그리하여 塔婆가 二種別을 막론하고 모두 臺座 내지 基壇部를 具備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四角塔柱 또한 위에서 推定한바 屋蓋別石과 더불어 그 下端에는 반드시 基石이 있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三

現在 남아 있는 三면에는 層級數의 差別이 있는 바 꾸어 말하자면 塔高가 서로 다른 多層方形塔이 各一基씩 조각되어 있다. 그중 아마도 가장 높은 一塔이 이 塔柱石의 正面이라고도 推定되는 바 이 高塔을 中心으로 하여 그 左右의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中央塔: 二層의 塔身部와 그위에 相輪의 各細部가 남아 있다. 最上層의 塔身에는 兩隅柱가 있고 屋蓋의 層級形 받침은 三段이며 檐端은 直線으로 그 兩端에 風鐸이 一個씩 달려있으며 屋蓋落水面과 轉角의 短促함이 注目된다. 相輪으로서 는 아래로부터 먼저 露盤의 上面이 넓은 板狀을 이루고 그 兩끝에 小風鐸이 달려있다. 이 같은 盤形은 金屬製 正方形의 것도 있어서 그 四隅에 小孔이 中央에 大孔이 있어 각기 風鐸과 檨柱를 위한 것인바 近年의 調査例로서는 慶北漆谷 松林寺 五層塔위의 方形鐵盤을 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鐵盤의 存在는 일찍부터 記錄에 보이고 있는바 有名한 新羅 皇龍寺九層木塔에 있어서 그 높이를 「鐵盤已上東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三國遺事卷三)이라고 한 것이다.

露盤 위에는 그다지 높지 않은 伏鉢이 있고 다시 그위에 仰花가 있는 바 이 仰花는 方形身部위에 立華形裝飾이 外反되어 있다. (이 같은 金銅屬製 遺品으로서 는 上揭한 松林寺塔의 것이 남아 있다) 또 仰花 위로는 檨柱에 貫通되어 있는 相輪 五個가 重疊되었는 바 이 곳에서 注目할 것은 五輪이 아래로 나려움을 따라 漸大하고 또 各輪마다 小風鐸이 달려있어 마치 五輪 兩端이 連結된 것 같이 보이는 點이다. 그런데 다시 注目되는 것은 이 같은 五輪頂部에 놓인 盤形으로서 그 下周에는 작은 圓形裝飾物이 달려있는 바 이것은 寶蓋이라 할 것이다(이 같은 形式의 것으로서는 年